

# 광주·전남, 소년체전 사전경기 '굿 스타트'

태권도·펜싱 잇따라 메달  
광주 금 1·은 1·동 3개  
전남 금 2·은 2·동 5개

광주시·전남도 선수들이 전국 소년체전 사전경기에서 순로롭게 출발했다.

22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주 선수단 이창민(상무중 2년)이 지난 21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 태권도 결승에서 김석호(부천부흥중 3년)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문상준(봉산초 6년)은 남초부 -34kg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 선수단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펜싱경기에도 메달을 수확했다. 장재호(금당중 3년)은 플러레 개인전 결승에서 김민결(부산 거점스포츠클럽)에게 10-15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진우(광주체육중 3년)는 에페 개인전에서 동메달, 김여원(풍암중 3년)은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선수단은 태권도와 펜싱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선전한 전남 펜싱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서민준(전남체육중 3년)은 지난 20일 울산문수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사전경기 대회에서 남중부 -53kg급 결승에서 김유성(안화중 3년)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보영(목포유달중 3년)도 여중부 -68kg급 결승에서 김도연(달천중 3년)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서진(해제중 5년)은 남초부 -34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윤도연(해제중 3년)은 여중부 -40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김도현(여수미평초 6년, -38kg급)과 소준산(전남체육중 3년, -57kg급), 김윤서(해제중 3년, -44



태권도 41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이창민(광주 상무중 2년·가운데).

<광주시체육회 제공>

kg)도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펜싱에서도 선전했다. 김승주(해남제일중 3년)는 21일 플러레 개인전에서 결승에 올랐으나 이다윤(신수중 1년)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백영연(해남제일중 3년)은 에페 개인전 준결승

에서 오수빈(상안중 3년, 울산)과 치열한 접전 끝에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빠른 1승 절실해” 여자배구 결전의 땅 튀르키예로

네이션스리그 출전 위해 출국  
주장 박정아 지난해 설욕 다짐  
“웃으면서 돌아오고 싶다”

세계교체를 위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23년 첫 국제대회인 국제배구연맹 바리블네이션스리그(VNL) 출전을 위해 출국했다.

한유미 대표팀 코치와 스태프, 주장 박정아(광주 AI퍼펙스) 등 선수 16명은 22일 튀르키예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고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나섰다.

어드바이저(고문)로 대표팀에 합류한 김연경(흥국생명)은 따로 출국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훈련 일정에 맞춰, VNL 1주 차 기간에 중도 귀국한다.

대표팀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한 뒤 VNL 1주 차 대회가 열리는 안탈리아로 이동한다.

튀르키예 여자프로배구 바키프방크 코치를 겸하는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은 튀르키예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 대표팀은 6월 1일 튀르키예와 첫 경기를 치른 뒤 캐나다(2일), 미국(3일), 태국(4일)과



한국 여자배구대표팀 주장 박정아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례대로 맞붙는다. 이후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로 옮겨 브라질(6월

15일), 일본(16일), 크로아티아(17일), 독일(19일)을 만난다.

3주 차 경기는 한국의 수원에서 치른다. 한국은 6월 27일 불가리아, 29일 도미니카공화국, 7월 1일 중국, 2일 폴란드와 경기를 치르고선 VNL 예선 일정을 마감한다.

결선 토너먼트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열린다.

지난해 VNL에서 한국은 12전 전패를 당했고, 승점도 얻지 못했다.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을 4강으로 이끈 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 양효진(현대건설), 김수지(흥국생명)의 공백은 너무 컸다.

2022년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1승 16패(VNL 12패·세계선수권 1승 4패)에 그쳤고, FIVB 세계랭킹은 23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찬 박정아는 “VNL 1, 2주 차를 마치고 웃으면서 돌아오고 싶다”며 “오랫동안 대표팀을 이끈 선배들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서 지난해 국제대회에서 팬들이 바라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아픈 경험도 경험이다. 지난해 경험을 쌓았으니, 올해에는 한결 나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21일(현지시간)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수디르만컵 결승전에서 '천적' 천위페이와 여자단식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자 허탈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에 또 발목 잡힌 한국 배드민턴

세계혼합단체선수권 준우승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6년 만의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대표팀은 21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수디르만컵 결승전에서 중국에 0-3으로 패했다.

적년으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2017년 우승 이후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2021년 4강전에서 중국에 발목 잡혔던 대표팀은 당시 패배를 설욕하지 못했다.

수디르만컵은 혼합복식,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순으로 5판을 치러 3판을 먼저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첫판 혼합복식에선 세계 5위 서승재-채유정 조가 세계 1위 정승웨이-황아중 조에 1-2(21-18 20-22 8-21)로 역전패했다.

남자복식 이윤규도 세계 10위 스위치에게 0-2(13-21 17-21)로 무릎 꿇었다.

그리고 3판째인 여자 단식에서 세계 2위 안세영이 4위인 '천적' 천위페이에 0-2(16-21 20-22)로 패하면서 경기는 끝이 났다.

천위페이에겐 최근 3연승을 거뒀던 안세영은 이날 패배로 상대 전적이 4승 9패가 됐다. 안세영은 예선과 8강에서 각각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3위 타이쯔잉(대만)을 연달아 제압했던 기세를 결승에서는 이어가지 못했다. /연합뉴스

## ‘빛장 축구’가 ‘삼바 축구’ 잠재웠다

이탈리아, 브라질에 3-2 승...일본·나이지리아·콜롬비아 첫승



“빛장 축구” 이탈리아가 ‘삼바 축구’ 브라질의 막판 집중력을 잠재우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이탈리아는 2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전반에 3골을 몰아친 뒤 후반에 2골을 허용하며 3-2로 ‘진땀’을 흘렸다.

이탈리아는 역대 U-20 월드컵에서 3위(2017년)가 최고 성적이다. 반면 브라질은 5회 우승(1983, 1985, 1993, 2003, 2011년)으로 아르헨티나(6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우승이 많은 전통의 강호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이탈리아는 파장 공세로 2023 남미 U-20 챔피언십 챔피언 브라질의 수비 라인을 정진 못 차리게 했다.

이탈리아는 전반 11분 만에 세사르 카사데이의 헤더 패스를 받은 마테오 파라티의 선제골이 터져 앞서 나갔다.

전반 28분에는 선제골을 도운 카사데이가 코너킥 상황에서 머리로 추가골을 넣었고, 전반 35분에도 카사데이가 자신이 유도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멀티골을 완성했다. 카사데이는 전반 C조의 일본은 라플라타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네갈과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세네갈에 39%-45%로 뒤지고, 슈팅에서도 7개-12개로 밀렸지만 전반 15분 타진 마스키 구루(FC도쿄)의 원발 중거리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 힘겹게 승점 3을 따냈다. 같은 조의 콜롬비아도 U-20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이스라엘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승리 대열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울지마 엄마
- 2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극장판 리틀 슈퍼맨 생생
-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4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울지마 엄마
- 5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슬픔의 삼각형
- 6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동물소환닌자 배꼽수비대, 거신: 바람의 아이
- 7관 세네카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8관 세네카를 스페인의 문단속, 존 워 4, 스트리머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오진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



즐거움  
문화  
산책